

광고탑·현수막 점용료 크게 오른다

전봇대·아치 등 최고 50% 인상 돌출간판 年 38,950원 새로 부과

올해부터 광주 시내 광고탑·현수막·전봇대 등의 도로 점용료가 크게 오르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새롭게 부과된다.

광주시는 4일 "건설교통부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한 도로법 시행령을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공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탑·광고판·간판의 경우 1㎡크기를 기준으로 연간 5만8천950원에서 8만1천350원으로 37.9% 인상하고, 이제까지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던 돌출간판은 연간

3만8천950원을 부과하게 된다. <표> 사실내내표지도 37.9%를 올려 개당 6만7천75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은 제시·종교행사용은 1㎡당 하루 150원에서 200원으로, 기타용도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33.3~50% 인상한다.

아치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1㎡당 연간 16만2천700원으로 46.6% 올린다.

전봇대도 개당 현행 900원에서 1천250원으로 38.8%인상하며, 공중전화·송전탑·수도관·가스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인상하게 된다.

광고판·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1993년 8월 관련 법규가 제정

■광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월)				
	점용단위	기간단위	기존	변경			
전주, 기로등 지중배전용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유선방송용단자함, 방사전용류대전회기기, 국, 교통방송기지, 주차축전기, 우체통, 소 화전, 모래함, 제설용구름 중중전화 송전탑	1개	1년	900	1,250			
			1,350	1,850			
			36,150	36,150			
			토지가격에 급한 금액	0.05를 곱함			
			점용면적1㎡	1년			
			점용면적1㎡	1년			
광고탑, 광고판, 간 판(돌출간판 제외) 돌출간판 사설 안내 표지	표시면적1㎡	1일	200	300			
			표시면적1㎡	1년	58,950	81,350	
			표시면적1㎡	1년	-	38,950	
			1개	1년	49,100	67,750	
			제시나 종교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 기타의 용도 도로횡단	표시면적1㎡	1일	150	200
						1년	200
1년	117,900	162,700					
현수막	표시면적1㎡	1년	58,950	81,350			
			58,950	81,350			
아치	표시면적1㎡	1년	58,950	81,350			
			58,950	81,350			

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4년 전에 제정된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올해부

터 현실화되면 난립하고 있는 돌출광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4년 전에 제정된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올해부

국제회의 유치·인력 양성·홍보 전담 '광주 컨벤션뷰로' 3월 설립

국제 회의의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구인 '광주 컨벤션뷰로'가 설립된다.

광주시는 4일 "오는 3월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 컨벤션뷰로'(Kwangju Convention Visitors Bureau)를 설립, 국제회의의 유치는 물론 개최지원·정보수집 및 배포·인력양성·국제회의의 산업의 국내외 홍보 등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벤션 뷰로는 방문객과 국제회의 등 컨벤션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숙박·오식·교통·관광·여행·금융·법률 등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컨벤션 사무국으로, ▲국제회의 유치 지원 ▲방문객 숙소

배정 ▲일정관리 ▲관광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비영리로 운영된다.

시는 컨벤션 뷰로에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3개 팀을 만들어 이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컨벤션 개최 건수는 매년 2~3건씩 늘어 2010년에는 13건에 이르고 참가자는 1천487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44억5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해 7월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과 컨벤션뷰로 등 전담조직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컨벤션뷰로 설립을 준비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4회 총장로 축제 國體기간 중 열기로

올해로 제 4회를 맞는 '2007 광주총장로축제'가 전국체전 기간 중인 오는 10월 9일 개막한다.

광주시 동구청 총장로축제위원회(위원장 박선홍·이하 축제위)는 올해 축제를 제8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9~14일 6일 동안 총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또 축제의 주제를 기존의 '7080' 대신 노·장·정년 세대는 물론 유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테마로 바꾸기로 하고, 추후 프로그램 운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축제위는 축제 기간 동안 전국 및 해외의 방문객들이 다수 몰려드는 만큼, 축제를 통해 동구의 이미지는 물론 광주시의 이미지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im@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3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광천시장에서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서구청 제공>

북구청 점자교실 운영 내달부터 11월까지

광주시 북구청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을 운영한다.

수강 희망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팩스·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북구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4개월이고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점자의 이해와 원리, 로마자 알파벳 의하기 등 점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다음달 5일부터 한글교실도 운영한다. 전화 문의는 510-1348. /이승배기자 lsb54@

서구청, 화재 광천시장 돕기 나서

광주시 서구청이 지난달 31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광천시장(본보 2월 1일 7면) 상인들을 돕는데 앞장 서 나섰고.

서구청은 지난 3일 공무원 등 140명과 청소차 등 8대를 파견해 시장 내에 있던 잔해 15톤을 수거했으며, 내부 물품수도 벌었다. 또 자원봉사 단체인 '느티나무' 회원 14명은 점심을 무

료로 제공했다.

전주언 청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공직자 혁신 워크숍' 시상금 80만원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화재가 발생, 점포 21개와 가구 18세대를 태웠고, 11명 부상을 입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영산강 수질 향상 위한 하수관거 정비 광주 377km 구간 BTL방식 추진

광주시는 영산강 수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377.2km구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라 현재 BOD(생물학적산소 요구량) 8.2ppm인 남구 승촌동 하강교 지점의 영산강 수질을 2010년까지 5.6ppm으로 낮추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중앙·서창·송암·하남 등 4개 하수처리장의 11개 분구 하수관거 377.2km를 현재 합류식에서 유·오수를 분류하는 식으로 정비해 현재 87.51%인 하수관거 보급률을 95%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사업자가 민간 자본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공사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방식(BTL)을 도입한다. 또 임대 기간 중 공사비·이자·유지관리비 등 총 투자비용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하기 위해 3천953억원(국비 1천186억원·시비 2천767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사전환경영향 검토용역(1~5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결(10월) 등을 차례로 추진,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관거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또 광주 제1.2하수처리장에 454억원을 들여 하루 62만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중앙·철단·송정·송암·하남·송정·평동·본촌 등 17개 분구의 불량 하수관을 정비한다.

▲ 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 하수관거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하수관거의 경우 20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시는 이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정화조 설치·청소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영산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35년 전통의 최고당 원료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무늬 오가미 식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상의 식품

당생식품 TEL: 062-368-3309, 362-6800

가발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기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대미신년예프리오기름맞춤

마이로봇 마이발렌트

Manhapal

강력한 살균력

마이로봇 마이발렌트

TEL: 0952-8751, 011-641-6751